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9. 12.(금)

상생연대 수출금융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 HL그룹-하나은행 80억원 출연 … 무보, 1,000억원 규모 대출보증 지원
- 현대차에 이어 두번째 사례, 철강 등 美 관세피해 업종 중심으로 확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12일(금)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면서 "정부 또한 수출과 투자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난 9.3일 발표한 美관세대응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담당자	서기관	김애경	(044-203-404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